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이 논문은 제7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3.4.1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경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GINUEIRB-2021-003).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맺음말

I. 머리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억 명 학생들의 등교가 일정 기간 중단되면서, 중단 없이 학교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스크린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 교육이 시행되었다(Vincent-Lancrin, Romaní, & Reimers, 2022). 한국에서도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 개별 학교의 규모와 감염 상황, 학생들의 특수 교육 및 돌봄 요구 등을 고려해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었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육 방송, 소셜미디어, 실시간 화상회의, 인쇄된 학습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다중적으로 활용하며 학교 교육을 이어갔다. 급격한 감염병 위기 상황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위험사회(risk society)’(Beck, 1986/1997)이며,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사회와 교육 체제가 일시에 멈추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면하게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은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가정과 디지털 미디어의 스크린으로 학습 공간을 급격히 이전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학생의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석과 과제 수행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자원 제공과 교사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았다. 학교 정규 수업은 물론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운동, 놀이, 여가, 돌봄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녀의 원격수업 참여를 돕고 학교와 의사소통하고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며 학습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의 학습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 아동에게 일어난 일상 변화에 대해 아동과 부모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강희주·구슬이·윤은영·정익중(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삼시 세끼 설거지와 밥하기’를 반복하며 쉬는 시간이 없어진 ‘탈출구 없는 일상’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잔소리의 원인 및 아이와의 트러블이 된 ‘자녀의 늘어난 미디어 사용 시간’, ‘없어진 운동 시간’, ‘변화된 수면 패턴’ 등 무너진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염려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만족’, ‘학습 지도의 어려움’,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 등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은 언어 노출, 독서와 쓰기 활동,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자원 등 자녀의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문해 환경’(김남희·정혜영, 2013)에 디지털 기술과 자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부모들은 가정 내에 적절한 디지털 기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곁에 머물며 인터넷 연결과 각종 학습 플랫폼 및 수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도구 활용을 도와야 했다. ‘디지털 육아(digital parenting)’는 디지털 환경의 자녀 양육을 뜻하는 말로, 가정 내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미디어 이용이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음을 반영한 용어이다(정현선, 2017). 자녀의 첫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기, 시간 및 방법을 조절하고, 스크린 미디어

에 과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자와 인쇄물 등을 접하고 좋아하며 자랄 수 있는 가정 문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디지털 육아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던 부모들은 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가정의 디지털 문해 환경 및 부모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격차가 자녀의 원격수업을 도와야 하는 부모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생의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되었다.

부모가 원격수업을 지원하며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파악하는 일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지속해야 했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판으로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높은 강도로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시작된 원격수업이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스스로도 감염병 위기에서 자신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디지털 기술을 새로 익혀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해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감염 상황과 출결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기술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과업들을 처리하며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공하고 채점하며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디지털 교육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급격히 증가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세심하게 계획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시간이 부족했다(Yoon, Jeong, & Kim,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스크린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 원격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문해력 후원자(sponsors of literacy)’(Brandt, 1998)로서 가정 문해 환경 조성을 비롯해 학생의 문해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엔데믹 시대의 ‘교육 회복’을 위한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원격수업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의 동력이 되었다(교육부, 2023).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스크린 미

디어가 매개하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수업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교실 공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그리고 스크린 미디어가 매개하는 새로운 수업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를 상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보다 섬세하게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문해력 후원자’로서의 부모 지원 방안 마련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문해력 후원자’로서 부모의 ‘디지털 육아’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이용 방식 변화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가정 문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스크린 미디어 기기는 그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이나 데스크톱 컴퓨터의 화면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을 가진 기기로 변화했고, 한국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개인적,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보 이용, 사회적 연결, 오락, 학습과 업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과 비이용 시간을 구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하며 학습을 하는 등 활발한 디지털 문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의 ‘가정 문해 활동’과 구분되는 ‘가정 디지털 문해 활동(family digital literacy practices)’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Harrison & McTavish,

2018; Marsh, Hannon, Lewis, & Ritchie, 2017).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고려하며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온라인 세상의 삶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디지털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한국의 학교 교육과 입시 체제에서 ‘디지털 육아(digital parenting)’를 고민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교실 수업과 평가에서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는 인쇄 매체와 문자 중심의 문화와 학습 방법에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 허용, 조절하고, 오락이나 문화적 활용보다는 학습 목적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2021).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은 디지털 육아에 관한 부모들의 신념과 행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Livingstone과 Blum-Ross의 최신 연구(Livingstone & Blum-Ross, 2020)에 따르면, 부모들의 디지털 육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세 가지 ‘장르’의 양상을 보인다. 부모들은 디지털 기술이 자녀의 미래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에 대해 예상하면서,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적극 ‘수용(embrace)’하지만, 자녀의 일상이 지나치게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resist)’하고, 자녀에게 허용하는 미디어 이용 방식과 허용하지 않는 미디어 이용 방식을 구분해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식의 인식과 실천을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양상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상황과 방식에 따라 동일한 부모에게서도 나타난다. 디지털 육아에 대한 이러한 복잡한 실천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을 조절하며 원격 학습을 도와야 했던 한국의 부모들에게서도 확인된다(Kim, Jeong, Willett, Lim, Yoon, & Kim, 2022).

부모는 동료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agency)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OECD가 제안한 미래 교육 모형의 학습 나침반에서는 학생,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웰빙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OECD, 2019). 부모가 관여하는 협력적 주도성은 “물리적 거리나 영향력의 밀도를 불문하고 문해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거나, 규제하고, 억압하고, 보류하는 모든 주체”를 뜻하는 ‘문해력 후원자’(Brandt, 1998)로서 부모의 기능과 관련된다(서수현·옥현진, 2012; 원애련·정현선, 2015). 디지털 육아 및 가정 문해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부모는 디지털 문해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을 가정에서 지원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등 자녀와의 ‘협력적 주도성’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보류할 수도 있는 주체인 것이다.

2.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

모든 부모가 학교 교육의 ‘협력자(partner)’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과제를 돕는 일은 부모와 자녀 간 ‘전쟁’을 일으켜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를 오히려 가로막기도 하며, 교사와 학교에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Lareau, 1994). 또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과제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적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모가 자녀의 과제를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도움에 소득과 교육 수준,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등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격차 및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Lau & Ng, 2019). 부모의 스트레스, 자원 부족, 문화적 자본의 부족, 소수 민족 및 빈곤

등의 요인은 학교 교육에 부모가 협력하기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Hart, Bracey, Oliveria, & Paul, 2022).

고밀도의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의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으로 존재하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경쟁적인 입시 제도하에서 부모가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responsibilisation)’가 지배적인 교육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Doherty & Dooley, 2018). 한국의 부모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자녀교육의 ‘책임 부여’에는 학업 목적의 사교육뿐 아니라 놀이와 돌봄을 위한 사교육도 포함된다(Chung, 2020).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학원의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 결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다시 크게 높아졌고(75.5%), 2022년에는 더욱 증가했다(78.3%)(이덕난·유지연, 2022). 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득 300만 원 미만은 17만 8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이며, 지역별로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의 경우 70만 원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10-2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부여된 자녀교육의 ‘책임’의 한 형태인 사교육 참여가 부모가 지닌 지식과 시간 및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불평등한 과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23).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 경험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살펴본 이보람·이강이(202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과제를 내서 공부를 시키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의 구체적인 원격수업 지원 행동을 가장 많이 한 부모 유형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집중 육아(intensive parenting)’ 방식의 부모 유형이었던 반면, ‘불안형 부모’나 ‘스트레스형 부모’ 가운데에는 맞벌이 비율이 높아 자녀의 원격수업 지원에 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과 스

크린 미디어로 옮겨온 원격수업의 공간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협력’해야 했던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가정의 문해 환경 조성, 디지털 육아 및 자녀 학습의 ‘책임 부여’와 관련한 가정의 상황과 실천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의 어린이, 미디어, 부모의 자녀 양육(Children, media and parenting in the COVID-19 pandemic)”¹⁾에 대한 국제 병렬 연구를 위해 수집된 질적 인터뷰 결과의 일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시기를 기준으로 만4-11세 자녀를 둔 부모였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의 인터뷰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험과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험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응답, ‘Zoom’을 활용한 40분 내외의 반구조화 인터뷰, 코로나19 상황의 경험을 요약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설명하는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자 및 가족 구성(자녀 수 및 연령, 가족 형태), 인구통계(인종,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수준), 가정에서의 스크린 미디어 사용 방식, 팬데믹 기간 중 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고, 인터뷰 질문은 팬

1) 해당 연구는 호주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디지털 어린이 연구소(Centre of Excellence for the Digital Child)에서 수행된 것으로, 총 7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 국가의 책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병렬 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데믹 기간의 가정 내 자녀의 미디어 사용 및 원격수업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 모집은 2021년 10월 -2022년 1월 사이에 눈덩이 표집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용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의 분석 자료는 연구 참여자 총 18명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경험한 15명(어머니 13명, 아버지 2명)의 인터뷰이다(유아 자녀의 부모 3명 제외). 분석 대상 인터뷰 참여자에는 소득 수준(상 1명, 중 9명, 하 5명), 가족 구성(한부모가정 2명, 발달 장애 자녀 가정 4명, 다문화 가정 2명)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약자가 포함되었다. 참여자 중에는 소득 수준 '하'에 해당하고 디지털 기기가 부족해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태블릿PC를 대여받은 가정(2명)도 있었다. 부모 모두 취업한 맞벌이 가정(12명)의 부모가 자녀 돌봄에 전념하는 부모(전업주부 3명)보다 많았고, 맞벌이 가정 중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육아 휴직 상태에 있는 경우(2명), 부모가 유연 근무로 가정에서 자녀와 머물 수 있거나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이 가능했던 경우(6명), 자녀의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경우(4명)도 있었으나, 한부모가정의 부모로서 자녀 돌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부모(1명)도 있었다. 참여자에는 원격수업에 대해 학교와 가정의 시각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초·중·등 교사(초등교사 3명, 중학교 교사 1명, 교사 4명), 교수(1명)가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가 다닌 대부분의 학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격수업과 대면 교육을 혼합해 실시했으며, 가정에서 학생의 학업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자녀를 매일 등교하도록 한 사례(2명)도 있었다. 또한 드문 사례이지만, 스크린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원격수업 방침에 거부감을 느끼고 1개월 이내의 원격수업 기간 이외에는 등교 수업을 한 소규모 대안학교로 자녀를 전학 보낸 부모(1명)도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는 팬데믹 기간의 학습 결손 또는 돌봄을 위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지속했다(12명).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방법은 Braun과 Clark가 제시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즉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초기 코드 생성하기’, ‘주제 생성하기’, ‘주제 검토하기’, ‘주제 정의하기 및 이름 지정하기’, ‘예시 찾기’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다(Braun & Clark, 2006). 이 연구의 주제 분석은 이론적 틀에서 시작하지 않는 ‘귀납적 주제 분석(inductive thematic analysis)’에 해당하며, 개방 코딩을 통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제 분석 방법은 여러 코드에 걸쳐 있는 의미를 포착하고, 분석하려는 현상에 대해 논의할 사항을 주제로 찾아내며, 이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기대나 논리를 식별하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Mihás, 2023). 주제의 식별은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의 경험을 포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측면을 패턴화된 방식으로 포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해당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더라도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고되며, 인터뷰에서 발췌된 인용문과 함께 제시된다.

분석은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클라우드 협업 기반의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DeDoose’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다섯 가지 주제와 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 분석 개요: 주제와 코드

번호	주제	코드
1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수업, 스마트폰/게임 이용 시간과 빈도, 미디어 이용 조절/제한 규칙, 스크린 매개 의사소통, 미디어 이용의 장단점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아이의 일과, 잠 깨우기, 수업 태도 관리, 기기 구입, 자녀 옆에 있기, 기술적 문제 해결, 숙제 제출, 점심 준비, 야외활동/운동, 돌봄, 부모 과외, 사교육/학원
3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이학습터, 동영상 강의, 줌, 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 사교육, 학습 결손/격차, 지루함/집중/편지, 침묵, 교사/학교의 차이, 자기주도학습
4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손/몸을 쓰는 학습, 눈빛,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 질문과 토론, 체험 학습,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음, 개별 지도
5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	영어 교육, 메타버스, 거리두기/접촉 제한, 교육 내용과 접근성 확대, 따돌림/학교폭력 감소,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

IV. 연구 결과

1.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부모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실이 가정과 스크린 미디어 공간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원격수업 중에는 물론 그 이후의 시간에도 틈틈이 자녀가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디지털 환경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며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스크린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줌 수업 준비한다는 핑계 하에 게임 하다가, 수업 시작되면 노트북으로 줌이랑 이학습터로 수업 보다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끝나면 다시 게임 했다가”(평크슈크림²⁾) 하는 식으로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며 가정에서 수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자녀의 모습

- 2) 참여자들의 이름은 인터뷰 당시 부모 스스로 설정한 닉네임을 연구자가 한 번 더 바꾸어 제시하였다. 부모의 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에 대한 관찰이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조절 및 제한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고, 아래의 지오맘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실랑이”와 “딜(deal: 거래)”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자꾸 저한테 “엄마, 나 뭐 할 테니까 이거 한 번만 한 시간만 하게 해줘.”라든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딜(deal: 거래)이 들어오거든요. (...) 보여주면서도 일단 “너를 믿는다.”하고 말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 좀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 이상한 걸 본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한 번씩 좀 의도하지 않은 게 뜨는 경우가 있고, 되게 과격한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기는 하죠. [지오맘]

부모들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부적절한 내용물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며,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습뿐 아니라 친구나 친척들과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교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수용(embrace)’하면서도 자녀 소유의 기기가 아니라 부모 소유의 기기로서 미디어를 이용하게 하며 모니터링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상한 것”을 보지는 않았으며 안도하기도 했다(지오맘).

이 주제로 포착된 코드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 스크린 미디어가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에서, 부모들이 학습 목적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수용’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의 습관화 및 염려되는 내용물 이용에 ‘저항’하면서 ‘균

형'을 추구하려는 디지털 육아의 '장르'(Livingstone & Blum-Ross, 2020)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로 수렴되는 주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의 자녀 양육과 가정 내 미디어 교육에 있어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겪는 혼란을 보여준다.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의 일과를 계획하고 확인하며,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수업 태도를 관리하고, 인터넷 연결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돌봄 및 학업 유지와 보완을 위해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거나 학원이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등 사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책임을 떠안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실에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듯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도 바른 자세와 습관 들이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줌(Zoom) 수업이니”라며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수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줌(Zoom)이라도 아침에 학교 가는 것처럼 세수하고 준비하고 밥 먹고 옷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소망)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모습은 ‘아이의 일과’, ‘잠 깨우기’, ‘수업 태도 관리’에 관한 코드들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이는 원격수업에 관한 부모의 책임이 가정의 공간에서 얹히게 된 학교 밖 일상과 학교 수업의 경계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된 코드들은 ‘기기 구입’, ‘기술적 문제 해결’, ‘숙제 제출’ 등 원격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세부적인 단계에서 자녀의 “옆에 앉아” 일대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학습터의 복잡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돕는 일(살구맘), 퇴근 후 자

녀의 숙제 탑재를 도와주는 것(시폰) 등은 부모의 책임이 가정 내 학습 공간과 기기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어디 교육청 어디 어디에 접속하면, 그 학교 클릭하라고 해서, 자기 반까지 다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 과제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다 되게 해맸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결국 안 된 애들은 학교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옆에서 따로 배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과제도 해서 사진 찍어서 탑재란에 다 올려야 되고, 좀 어려웠어요. (...) 아빠랑 선생님이라 스피커폰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살구맘]**

[숙제] 탑재는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된다는 건 제가 아예 그냥 대신 해줬고, 왜냐하면 아이가 그거는 조작이 너무 어려워서 (...) 아이가 혼자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시폰]**

부모의 책임에 포함된 ‘기술적 문제 해결’에 관련한 코드와 예시들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학습 플랫폼 사용법을 익히는 데 있어 개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부모가 자녀의 곁에 함께 있으며 감당해야 했는데, 부모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격차가 있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능력[디지털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함으로써 좀 적응을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됐었어요. [전에는] 그냥 학교를 보내면 끝인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수업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막 애가 막 답답해 죽을라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조마조마하고 애가 막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많이 이

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장이맘]

장이맘은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자녀의 수업 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예시는 디지털 환경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자’로서 부모가 ‘문해력 후원자’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부모들의 디지털 격차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디지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곁에서 일일이 도움을 주기 어려웠던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조력과 분담 없이는 원격수업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교사가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학생에게 개별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부모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학생 혼자 교사와 통화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는 쉽지 않았다. 디지털 기술을 처음 익힐 때는 섬세한 일대일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모든 부모의 책임으로 부여되었고, 그 수행은 부모 자신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재택근무 등 근무 조건, 돌봄에 대한 가족의 추가 지원 여부와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모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도움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 관한 주제는 ‘이학습터’, ‘동영상 강의’, ‘줌’, ‘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 사교육’, ‘학습 결손/격차’, ‘지루함/집중/편지’, ‘침묵’ 등의 코드로 이루어졌다.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는 ‘교사/학교의 차이’ 및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모들은 원격수업 첫해에는 특히 이학습터에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를 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자녀들이 동영상 강의를 집중해서 보

고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콘텐츠 올리고 그냥 각자 보는” 동영상 강의 중심의 원격수업을 받은 자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고양이 이모*의 말은 “도입 끝나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 틀어놓고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포비)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은 ‘학습 결손’을 걱정하며, 대면 혹은 온라인 방식의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보충하고 있었다. “엘리하이”, “홈런” 등 태블릿 기반 온라인 사교육 서비스를 구독해 학습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자녀의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저희 아이는 사실 엘리하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거 다였다면 정말 학습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왜냐하면 다 해봐야 10시 내외로 모든 과목이 다 끝났으니까요. **[살구맘]**

살구맘과 같이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존의 등교 수업에 비해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양의 동영상 강의 탑재 및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사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지만 “처음에만 재미를 보였을 뿐”(클라이밍)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가 좋지 않았다는 부모들도 있었다.

한편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동영상 강의에 비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도록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체스)도 있었다. 체스는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학생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줌으로 만나서 너무 즐겁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체스)며 동영상 강의

답재 방식의 원격수업에 비해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줌을 활용한 수업을 일정 기간 받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 역시 대면 수업과 비교하면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려운 ‘침묵’의 수업 문화가 생겨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줌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었다.”(정이맘), “줌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 아이가 굉장히 수동적이 되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줌에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해야지라는 부분이 많아 보였다.”(배트맨)와 같은 부모들의 말은 원칙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학생을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래에 제시된 **답답한 마음**의 예시는 ‘침묵’의 문화가 생겨난 스크린 미디어 기반 수업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학습의 책임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다 조용히 있는데 왜 너만 질문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거의 어렵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다 조용히 수업 듣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답답한 마음]**

줌을 활용한 실시간 상호작용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및 이를 활용해 학생을 참여시키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유튜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책을 찍어서 올리고, 그 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달아주는” 이상적인 교사는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선생님”이었다(고양이 이모).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를 중심으로

로 한 주제에 속한 코드들과 예시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속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원격 교육의 이상은 대면 수업 장소로 이동할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어린 나이의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학생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수업 문화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학생의 옆에서 기술적 문제와 학습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부모의 책임으로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었다.

4.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기존의 교실 대신 가정과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자녀와 함께 경험한 부모들은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존의 교실 공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로는 ‘손/몸을 쓰는 학습’, ‘눈빛’,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 ‘질문과 토론’, ‘체험 학습’, ‘함께 있음’, ‘개별 지도’ 등이 추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받아쓰기”나 “일기 쓰기” 등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문해 활동이 등 학생의 ‘손/몸을 쓰는 학습’이 스크린 미디어 기반의 수업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을 지적한 부모(배트맨)도 있었고,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던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는 비록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매체를 통해 언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답답한 마음).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서 아가들이 사람과의 일대일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언어 발달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면 공간에서 교사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 공간에서는 수업 참여자들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함으로 인해 학습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도구와 공간

이 스크린 미디어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도구 역시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여기에서 작동하는 기술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연필, 칠판 등의 도구들도 동시에 다양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대면 수업 공간의 장점이다.

온라인 수업 방식은 미리 계획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어, 교사가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지켜보며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다 배울 수 있지만,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시폰)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었는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적인 교류”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교수자의 개입이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의미 있는 학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의 교육적 효과가 대면 수업의 플러스 알파”(배트맨)라는 부모의 말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즉시적인 교육의 효과를 예리하게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습 수준이 매우 낮고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교수학습의 도움을 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중도 입국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이학습터에 탑재된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를 학교에서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토마스).

이학습터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가, 저도 들어가보니까, 6학년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걸 많이 권장하셨는데, 초기에는 제가 애를 거기에 접근시키려고 애를 써봤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접근을 못했어요. 참 잘 된 내용이라구요. 그런데 실제 활용은 못 해봤어요. **[토마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과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며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다행히 이 부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러한 특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담임 교사의 배려로 자녀를 학교에 매일 등교시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크린 미디어 매개 학습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면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일어나는 “플러스 알파”가 효율성을 위해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부모들이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며 수많은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지식을 참고해 진단하고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교사가 대면 공간에서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은 개별 지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과 관련된 코드들과 예시들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면서 자신의 몸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5.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

대면 수업의 장점 및 필요성과는 상반된 주제로,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스크린 미디어 매개 수업이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한 주제도 제시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로는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화상회의 방식이나 동영상 강의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교육’을 비롯해, ‘메타버스’, ‘거리두기/접촉 제한’, ‘교육 내용과 접근성 확대’, ‘따돌림/학교폭력 감소’,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의 원격수업 방식, 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과 교수법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 그 가능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하는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거나, 학교 밖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경험한 부모들은 스크린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의사소통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 요구가 있는 자녀의 부모들 가운데에는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목적의 연극, 요리,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이나, 독서, 토론, 글쓰기 등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소규모 화상 수업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스크린 미디어 기반 학습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인 **담담한 마음**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인 연극 수업이나 ‘느린 학습자’ 대상의 요리 수업과 운동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말을 이용해 자녀가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 감사하고 있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말하기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자녀의 부모인 **민호맘**은 강사가 적절히 음소거와 마이크 권한 주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줌(Zoom) 활용 화상회의 수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가 대면 수업과는 달리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말소리나 필통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꺼낼 때 나는 소리”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녀가 자기 방에서 혼자 수업을 받으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 가운데에는 스크린 미디어를 매개로 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제약이 오히려 기존의 대면 교실 공간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코로나 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경우들이 많았다. 이는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최근 연구(임윤서, 2021)에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했던 인간관계 갈등이나 관계 피로가 줄어들어 타인에 대한 예민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긍정적 경험이 부각된

것과도 관련하여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 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윤서, 2021).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의 장점을 경험한 부모들은 팬데믹 이후의 학교 수업이 기존의 전면 등교 방식으로 전면 회귀하지 않고 온라인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을 지속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는 큰 아이 생각하면 사실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폐라는 특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사회성도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이런 건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라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모둠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막 건드리고,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미묘하게, 그런 지능적인 괴롭힘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느슨해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아이가 다 교실에 앉아만 있어야 되고, 아이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도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아마 99%는 다 그러실 거예요. **[살구맘]**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수업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코드로 포착된 인터뷰 내용들은 신경 발달 장애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스크린 미디어 기반의 수업이 갖는 장점이 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면 수업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실 공간의 구성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비장애인 자녀의 부모 가운데에서도 “매일같이 학교 다닐 땐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자녀들이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경험하며 “학교 안 가도 좋고, 학교 가도 좋고” 하는 모습을 보며, “굳이 학교를

매일 다닐 필요가 있었던 걸까?”(고양이 이모)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와 예시들은 “포스트매스미디어 시대”의 복합적인 미디어 개념으로 ‘도구’, ‘내용’, ‘제도’, ‘사람’, ‘공간/장소’의 다섯 가지 하위 개념을 제안한 김용찬(2020)의 논의를 적용해 볼 때,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도구’로서의 미디어들이 온라인 혹은 대면 ‘공간’으로서의 교실인 미디어 안에서 ‘사람’ 미디어인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수업에서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코로나19 상황의 원격 교육의 협력자로서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분석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문해력 후원자로서 기능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원에는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원의 격차에 따른 큰 격차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격차에는 부모 자신의 교육 정도,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 각종 기기와 자료 및 사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 수준, 자녀의 장애 유무와 정도 및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특수 교육 요구, 자녀 돌봄을 위한 부모의 유연 근무/휴직/조부모와 친척 및 공적 돌봄 이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 자녀의 학교 및 학급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 교육의 ‘협력자’인 부모들의 책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고, 부모들은 원격수업을 경험하며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 대해 섬세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 의사소통

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경험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다른 상상을 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협력 없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원격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격차는 학생의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에 대해 기술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 포착된 주제들은 디지털 기술 환경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있어 스크린 미디어 이용 제한과 조절 위주의 기존 지침을 반복하기보다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학습, 그리고 다른 부모들의 디지털 육아 경험과 인식 및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부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디지털 문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의 이해와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강연 기회가 늘어나고 학습 자료 개발 보급도 확산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실제적인 고민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론적 개념과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담론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2021).

또한 이 연구의 결과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을 계기로 더욱 가속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의 기조 속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 교육 및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의 학생들을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수업 상황에서는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에 있어 보조 교사의 활용 등 보다 섬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면 교

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가정과 스크린 미디어 안으로 옮겨왔던 코로나 19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의 ‘제도’인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학습 상황의 상세한 안내’ 등을 내세우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교 교육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방법 자체가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이다.

엔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실을 ‘회복’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교실’을 상상해야 할까? 기존 교실로의 전면 복귀가 아니라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교실의 재구성에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 필요하고, 교실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디지털 도구 및 공간과 비디지털 공간 및 그 안의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구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중심을 두는 수업을 구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과 비디지털을 오가는 교실 공간을 구성해 제대로 사람을 만나 학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에 있어 학생과 부모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 섬세한 코칭,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의 특성 및 장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면 의사소통과 스크린 미디어 매개 소통을 슬기롭게 오가는 ‘미디어로서의 교실’이 학생들을 위해 섬세하게 구축될 필요성을 말하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4.27. 투고되었으며, 2023.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3.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희주·구슬이·윤은영·정익중(2021),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4), 95-120.
- 교육부(2023. 2. 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색일자 2023. 4. 24., 사이트 주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54289#policyNews>.
- 김남희·정혜영(2013), 「어머니의 문해 신념, 가정의 문해 환경, 유아의 문해 능력 간 인과적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13-133.
- 김용찬(2020), 「미디어, 흔들리는 개념」, 『한국방송학보』 34(6), 115-150.
- 서수현·옥현진(2012), 「문식성 후원자의 작용 양상에 대한 사례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의 그림 일기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8, 63-85.
- 원애련·정현선(2015),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의 인터넷 만화 카페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2), 7-39.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이덕난·유지연(2022. 4. 28.),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 분석』 247, 1-33.
- 이보람·이강이(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 지원현황」,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63-78.
- 임윤서(2021), 「비대면 시대의 관계맺기: 대학생들을 통해 본 청년들의 인간관계 변화와 공감 교육을 위한 질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29(2), 126-181.
- 정현선(2017),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 서울: 우리학교.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202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2: 10대 청소년-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23),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Beck, U.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1986).
- Brandt, D. (1998), "Sponsors of Literac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9(2), 165-185.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hung, N. (2020), "Social topography of children's play: focusing on the middle-class parenting practices in South Kore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41(5), 670-684.

- Doherty, C., & Dooley, K. (2018), "Responsibilising parents: the nudge towards shadow tutoring",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9(4), 551-566.
- Harrison, E., & McTavish, M. (2018), "'i'Babies: Infants' and toddlers' emergent language and literacy in a digital culture of iDevic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8(2), 163-188.
- Hart, P., Bracey, O., Oliveira, G., & Paul, S-A. (2022. 7. 26.), *Problematising conceptions of "effective" home-school partnerships in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Studies, Accessed date 2023. 4. 24., <https://doi.org/10.1080/03055698.2022.2103651>.
- Kim, A., Jeong, H.S., Willett, R., Lim, J., Yoon, M., & Kim, G. (2022), 「Pandemic Screen Time: An Analysis of Parenting Practices Connected with Children's Use of Media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교육논총』 42(3), 81-96.
- Lareau, A. (1994), Parent Involvement in Schooling: A Dissenting View, In C. L. Fagnano & B. Werber(Eds.), *School, Family, And Community Interaction: A View From The Firing Lines* (1st Ed.), New York: Routledge.
- Lau, E. Y. H., & Ng, M.L. (2019), "Are they ready for home-school partnership? Perspectives of kindergarten principals, teachers and par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9, 10-17.
- Livingstone, S., & Blum-Ross, A. (2020), *Parenting for a Digital Futures: How Hopes and Fears about Technology Shape Children's L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 J., Hannon, P., Lewis, M., & Ritchie, L. (2017), "Young children's initiation into family literacy practices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5(1), 47-60.
- Mihás, P. (2023),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pproaches to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R. J. Tierney, F. Rizvi & K. Ercika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4th Ed.), Amsterdam, Oxford & Cambridge, MA.: Elsevier.
-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Student Agency For 2030*, OECD, Accessed date 2023. 4. 24.,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student-agency/>.
- Vincent-Lancrin, S., Romaní, C. C., & Reimers, F(Eds.)(2022), *How Learning Continu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lobal Lessons from Initiatives to Support Learners and Teachers*, Paris: OECD Publishing.
- Yoon, J., Jeong, H.S., & Kim, A. (2022), "K-Education" during the Pandemic: What Covid-19 has revealed about schooling in the world's most wired country, In Friesem, Y., Raman, U., Kanizai, I., & Choi, G(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Media Education Futures Post-Pandemic*,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정현선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 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수집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부모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다양한 코드들이 파악되었고, 이 코드들은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 코드들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이 가정 문해 환경을 조성하고 문해력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부모의 디지털 욕아에도 변화와 혼란을 가져왔고,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 지원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 자원에 따른 격차가 존재했으며, 원격수업을 경험하며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제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욕아 및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원격수업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기조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과 질문을 제기한다.

핵심어 원격수업, 디지털 욕아, 가정 문해 환경, 문해력 후원자, 디지털 기반 교육, 부모

ABSTRACT

Par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ith Screen Media - Based Remote Learning during the COVID - 19 Pandemic

Jeong Hyeonseon

Through a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of parents' interviews focusing on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creen media-based remot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produced various codes grouped into five themes: "children's constant exposure to screen media," "parental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remote learning," "screen media-based pedagogy and classroom culture," "the necessity of classroom space for in-person interactions and the use of various tools," and "the possibilities of new ways of learning through media communication." The analysis of these themes and their related codes reveals that remote learning in the COVID-19 context has disrupted and changed the digital parenting practices that create home literacy environments and serve as literacy sponsors. First, parents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being partners in schooling, have gaps in their suppor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based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Second, parents' experiences with remote learning have led them to re-evaluate and re-imagine their expectations of schooling. These themes, explored through the lens of digital parenting and parental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creen media-based remote learning, raise important perspectives and questions about how schooling should be designed to support student learning in the current policy context of digital-based educ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through remote learning.

KEYWORDS Remote Learning, Digital Parenting, Home Literacy Environment, Sponsors of Literacy, Digital-Based Education, Parents